

책으로 열리는 새로운 미래
책으로 일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60주년 기념식

60년 연륜으로 21세기 한국출판의 비전을 제시하다

글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한국 현대 출판산업과 궤를 같이 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지난 6월 4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출판문화 향상과 출판산업 고양을 위해 지난 1947년 3월 '조선출판문화협회'로 창립되어 오늘에 이른 출협은, 지난 60년 동안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고 혼돈의 시대를 이겨내며 책을 통해 지식을 전파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협은 지난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출판의 위상을 높였고, 이어 2008년 5월에는 IPA 서울총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출판강국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일조하고 있다.

- ❶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각계 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❷ 정진숙 율유문화사 회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박맹호 회장.
- ❸ ❹ 축사를 전하는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과 아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IPA 회장.



이날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출협 박맹호 회장은 “1947년 출판 자유 확보와 출판문화 향상을 취지로 설립된 출협이 어느덧 6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식산업의 근간을 이끌어가는 중추로 성장했다”면서 “이제 60년 연륜의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그 어느 때 보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21세기 출판의 비전의 제시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출판산업의 문화 창조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해야 한다”면서도 “지난 60년간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출판계가 더욱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아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IPA 회장은 “IPA의 주요 멤버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내년 IPA 서울총회가 기대된다”는 말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출협은 김우창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강우현 (주)남이섬 대표, 배병관 COEX 대표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나춘호 APPA 회장과 이정일 일진사 대표, 이두영·정종진 전 사무국장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